

끊임없는 도전으로 지역의 미래백년을 제시하는 혁신 리더 신정훈

나주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거점도시로 화순은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칼의 허브로

신정훈 의원에게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전국 최초의 쌀 경영안정직불제, 전국 최초의 친환경 학교급식, 전국 최초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전국 최초의 마을택시 등은 척박한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일구어 낸 대표적 신정훈 표 민생정책이다.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설계자이며, 문재인 캠프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지역인재할당제를 제기한 제안자이기도 하다.

우리가 변화를 꺼리는 이유는 변화가 가져올 두려움 때문이다. 한 번도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한다. 변화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신정훈 의원이 남들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변화와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현장의 문제와 자신의 창의적 감각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냈기 때문일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리더가 신정훈 의원이다.

그의 꿈은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유치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는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신산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혁신역량을 지역발전으로 연계하는 변화의 기점에서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자원한 이유이기

도 하다.

과거 에너지는 전기처럼 단순한 부분이었지만 미래는 모든 흐름이 에너지를 통해 움직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진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보관, 분배는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으로 나주에너지밸리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은 무한하다.

화순군은 바이오 산업으로 한국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 산업은 해마다 10%이상 성장하는 산업으로 관련 연구와 제조까지 포괄하는 미래산업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메디칼 산업과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거점도시로, 화순은 대한민국 바이오 메디칼의 허브로 삼아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한전공대 조감도



▲ 백신단지 전경

나주 · 화순을 광주 · 전남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2021년 새해 예산, 15개 사업 317억원 증액 총사업비 나주 1,860억원, 화순 1,844억원 확보

신정훈 의원은 2021년 정부 예산에 나주와 화순의 지역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결위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를 전달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17억 원(15개 사업)을 추가로 증액해 총사업비 3천704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나주의 에너지밸리와 화순군의 바이오 메디칼 허브 사업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나주에너지밸리가 미래 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40억5000만 원 ▲폴리텍 전력기술교육원 건립 7억4000만 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기술개발 및 실증 79억 원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 기술개발 30억 원(이상 에너지 특구) 등의 국비 예산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총사업비 58억 원 중 5억 원 확보)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센터 기반 구축(총사업비 160억 원 중 20억 원 확보) ▲이차전지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총사업비 250억 원 중 50억 원 확보) ▲EV/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개발 및 실증(총사업비 220

억 원 중 30억 원 확보)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60억 원(총사업비 360억 원 중 35억 원 확보) 등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화순은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58억 원), '첨단 정밀 의료산업화 플랫폼'(50억 원), '의료연계형 산림 치유시설 조성'(23억 원), '기능성 가정간편식 실증 실용화 지원센터'(5억 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65억7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47억5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화순 바이오 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총사업비 320억 원)은 신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약속한 대표공약으로 수년째 미뤄졌던 사업예산이 반영돼 올 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신년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보만리(牛步萬里)

할 일 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2021년에는 힘들고 우울했던 모든 일을 떨쳐 버리고 건강과 행운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머잖아 극복될 것입니다. 인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2월부턴 국민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삶의 기적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9조 3천억 규모의 긴급 자금 투입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중에는 200~300만원,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돌봄 서비스, 법인 택시 기사 등에게 50~100만원

이 지원되고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와 국민이 조금만 더 서로 신뢰하고 협력한다면 반드시 다시 웃게 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검찰개혁 등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일에도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개혁 저항세력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촛불민심의 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화순의 생물약 산업과 나주의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발끈을 바짝 조여 매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드문드문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말처럼 뚝뚝뚝 우직한 자세로, 더불어 행복한 세상,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해 기필코 할 일 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예산성과

317억 증액!
3704억 확보!

지역	사업명	예산액
나주	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신규, 총사업비 198억9,600만원)	9억 2,700만원
	나주혁신산단 폐수처리시설 (신규, 총사업비 58억원)	5억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정부안 45억원, 80억원 반영)	35억원 증액
	저압직류 핵심기기 인증지원 (신규, 총사업비 58억원)	20억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신규, 총사업비 250억원)	50억원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신규, 총사업비 360억원)	60억원
	EV, 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기술개발 (신규, 총사업비 220억원)	30억원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기술개발 (신규, 총사업비 180억원)	30억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기술개발 (정부안 70억원, 79억원 반영)	9억원 증액
화순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신규, 총사업비 320억원)	10억원
	강치지구 불교 위협지역 정비 (신규, 총사업비 40억원)	2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정부안 58억원, 65억7천만원 반영)	7억 7천만원 증액
	치유의 숲 조성 (정부안 22억 5천만원, 47억 5천만원 반영)	25억원 증액
	화순동면 ~ 송광 봉산 국도 건설 (정부안 20억원, 60억 9천만원 반영)	40억원 증액
	유마사 관광자원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1억원

집권여당으로서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리겠습니다 신정훈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의 지난 총선공약은 '신(新) 답전보'였다. 답전보(答田父)는 손에 호미를 들고 밭에서 김을 매는 나주의 한 늙은 농부가 삼봉 정도전을 만나 죄목을 추문해 가는 형식을 빌려 조정 벼슬아치들의 비뚤어진 삶을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담은 명문장으로 백성이 진정하니 땅의 주인이라는 민본(民本)의식

을 담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삼봉 정도전 선생의 답전보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백성의 삶과 괴리된 기득권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며, "진정으로 지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담아보려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나주 화순은 지난 1985년 이후 35

년 만에 집권 여당 국회의원, 신정훈을 선택했다. 지역 발전의 골든 타임이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치열히 고민하며 지속가능한 나주 화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신정훈 의원이 약속한 '신(新) 답전보' 공약의 주요 추진경과와 올해 역점 공약을 소개한다.

2021 화순발전

국가백신안전센터

국내 백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283억 원(국비 213억·도비 32억·군비 38억 원)이 투입하는데 올해 정부예산으로 65억7천만원을 확보해 백신 국산화 및 제품화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화순백신특구내 부지 5000㎡, 연면적 397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올해 초 설계에 착수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이다. 백신안전기술센터가 설립되면 기존의 화순 메디컬클러스터 및 바이오클러스터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백신산업특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지난해 전남도, 화순군과 함께 면역치료 국가 컨트론타워를 담당할 '국가 면역치료혁신플랫폼 구축 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유치를 우리 화순이 차세대 백신산업과 면역치료 산업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올해 58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460억(국비 230·지방비 230) 원을 투입되며,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화순전남대병원 인근에 올해까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난치성 질환인 암과 치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항암제 원천기술 개발로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국산화하고 면역치료 분야 거점 기반을 구축한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화순이 선정돼 올해부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할 계획

이다. 2021년 정부 예산에 건립 추진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만7000여㎡,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4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별도의 공동 연구동과 생산동, 기업 홍보관, 비즈니스 카페, 세미나실, 게스트 룸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들어선다.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

지난해 국비 50억 원을 지원해 실시설계 등을 진행한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는 사업 확대와 국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올해까지 75억 원을 투입, 화순을 수만리 일대에 자연 친화적인 목재 소재로 연면적 158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센터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차별성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산림복지 모델을 만든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산업의 실리컨밸리이다. 코로나19에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백신산업, 바이오와 메디컬이 결합된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다양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어 최소 비용으로 조기에 구축이 가능한 최적지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도와 함께 국가전략사업에 반영되도록 1조3천억원 규모의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과 충북, 대구, 경북을 잇는 국가첨단의료 3대 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1 나주발전

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국립나주박물관은 신정훈 의원과 인연이 깊다. 그가 나주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영산강 문화관광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유치했었다. 국립박물관의 위상에 맞지 않게 문화 공연시설이 없었다. 신정훈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 예결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자료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 끝에 다행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설계비로 9억 3000만원이 반영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98억원이 투입되어 연면적 4,500㎡(지상1, 지하 2층)으로 스마트 어린이박물관, 디지털정보센터, 미래형 수장고 등을 마련해 호남 역사의 뿌리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난다.

어린이 테마도서관 '생활SOC복합센터'

지난 총선 공약이다. 빛가람 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국비 47억원을 확보했다. 총 158억원을 투입, 빛가람동383(LH2 단시아파트 옆) 시유지 1,325㎡(연면적 6,300㎡)에 오는 2023년까지 어린이(가족)특화 생활SOC복합센터

건립한다. 총5층(지상4층·지하1층) 규모로 신선한 산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먹거리 상생 푸드마켓'(1층)을 비롯해 '어린이테마도서관', '육아지원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농산물체험장' 등이 건물 2~4층에 들어선다.



폴리텍대학 나주전력교육센터

에너지벨리에 대비한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 대학 빛가람 캠퍼스 예산을 확보했다. 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센터는 '에너지벨리' 입주 기업 지원에 필수인 '전력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이다. 건립 예정지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9BL에 세워지며 올해부터 공사에 착수해 2023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에너지 신산업을 토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벨리 강소연구특구

지난해 7월 전국 최초의 공기업형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에너지벨리

강소연구특구는 총사업비 360억원 중 올해 예산으로 35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 조성 사업이다. 앞으로 한전공대 연구소와 클러스터 용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강소특구로 편입해 한전공대와 연계한 글로벌 사이언스파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나주-광주-화순 잇는 광역철도 건설

나주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화순전남대병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 도심에서 나주와 화순 등 두 방면으로 가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도록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을 추진중이다. 사업비 1조8917억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철도 45.0km를 건설해 광주 지하철 노선과 연결한다. 나주 방면은 1조3692억원을 들여 광주 상무역~서광주~풍암~대촌~나주 남평~나주혁신도시~나주역~동신대~노안~광주 평동역을 잇는 32.6km를 유(U)자형으로 건설한다. 화순 방면은 5225억원으로 광주 소태역~화순읍~화순전남대병원을 연결할 12.4km를 계획중이다.

신정훈 "국민의 절박한 삶을 지킨다" 코로나 극복 민생회복 대책 마련 앞장

2021년 새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일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도약의 한 해

가 될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소중

한 일상을 되찾는 삶의 기적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한 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력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수해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민생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을 비롯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릴 지역화폐 활성화, 백신국산화를 앞당길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 농업인과 소

상공인의 재난피해를 현실화 하는 법안 마련 등에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올 한 해도 코로나 극복과 민생회복, 나주와 화순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새해 계획을 밝혔다.

신정훈 의원, 코로나 극복 민생회복 주요 성과

1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제안

지난 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출마자 10명으로 구성된 민생 혁신모임과 함께 국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건의해 추경 반영을 이끌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9조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보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골목상권 지킬 지역화폐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이웃의 숨통을 트여 주는 민생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3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

국내 백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283억 원(국비 213억·도비 32억·군비 38억 원)이 투입하는데 올해 정부예산으로 65억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백신 국산화 및 제품화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 농업재해지원 현실화 법안 발의

불가항력의 재난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5 소상공인 재난지원 현실화 법안 발의

소상공인의 재난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천가, 신정훈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제도 개선에 앞장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채용해 온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국가권력의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었고 자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고도성장을 이룩해 국민들은 절대기반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그러나 중앙 집권체제는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과소화 그리고 이로 인한 경쟁력 정체를 낳는다.

집중도가 높다하여 반드시 나쁠 것은 아니겠지만, 그 높은 집중도가 수도권의 혼잡을 초래해 경제, 환경, 보건, 삶의 질 측면에서 수도권 스스로에게도 해로운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자원을 빼앗긴 지방의 고통이 심한 것이 문제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다. 나주의 경우도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로 나와 신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신정훈 의원은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이 새로운 미래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튼튼한 지방분권의 조건으로서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지방의 자립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안

2022년 3월 개교 예정인 한국에너지공과(한전공대)의 설립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R&D거점이자

교육기관이 될 것이다. 학교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신설 공공기관 본사 또는 주사무소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혁신도시가 각 지역별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선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의 시너지 극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에너지산업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다. 에너지산업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에너지 특화기업 및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을 포함한 '에너지산업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서 있는 우리 이웃의 숨통을 트여 주는 민생정책의 핵심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

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지역특구 제도는 시군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나주배특구, 화순백신특구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수준의 지원을 이끌 계획이다.

에너지 지역분권화 4법

기초 지자체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기금 마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에너지 분권화 4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지역 현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나 정작 필요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4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현장에서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창구가 지역재생에너지 전환지원센터로 일원화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권한 또한 확대될 것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30년,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앞장서고 있다.



신정훈은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은 스스로를 '휴머니스트'라고 말한다. 그의 할아버지께서 집에 걸인이 찾아와도 '사람을 귀히 대해야 한다'며 경상을 하셨다.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마음 깊숙이 사람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

신정훈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가치를 가장 존엄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완성도 높게 실천하고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농민, 노동자, 소상공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의 삶과 함께 부대끼는 신정훈의 주요 입법 활동을 살펴본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기구 제도화로 현장맞춤형 정책 반영과 농어정(農漁政) 협치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민을 대표할 법정기구가 부재하다 보니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구조는 그동안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보여왔다.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민관 협치 농어정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법정기구로서 지위를 갖도록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했다. 불가항력의 재난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석탄 채굴 사업장 폐광과 감산 등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순군을 비롯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을 이끌었던 폐광지역이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과 지역 배분을 늘려 화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중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내 이해관계가 있는 도급인, 고객 등이나 사업주의 4촌 이내 친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재 은폐 사업주·사업장 공개로 사람 우선 생명존중사회 지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의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영업범위 제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행명령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정조사 제도의 실효성 보완할 계획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소상공인 재난 지원 현실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재난으로 상가나 관련 집기 등이 파손된 경우 일종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정훈,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 선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 이슈 및 대안 제시 능력 높게 평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심사한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정쟁배제·민생실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 정명채, 최정표, 장인태) 부처 현안에 대한 이해, 사안의 본질, 시급한 민생 의제 아젠다화 여부, 정책분석력 등 문제제기 능력과 정책의 변화발전 방향 제시, 개혁성,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참여 및 권익 향상 등 대안제시 능력을 모니터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연료비 연동제 요금개편 ▲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정책의 문제점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한 점과 ▲중소기업전용매장 폐점률 상승 문제 ▲수출성공기업 수출중단 사태 ▲국유특허 활용률 저조 문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실효성 논란 ▲무자격 상표출원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정감사가 일방적인 폭로나 일회성의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국민 앞에 투명히 알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 측의 수급과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발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통과 공감의 민생정치... 현장의 정치인, 신정훈

신정훈은 지난 30년 동안 농민, 서민들과 현장에서 부대끼고 그들과 꿈을 나눈 민생정치 전문가이며, 현장의 정치인이다. 생생한 민생정치의 경험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지역 구석구석 누빈 차량 주행거리만 1만9천487km이다.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부대끼며 함께 생활하면서 현장의 잘 알고 있고, 현장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으며,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준비되어 있다.

신정훈 의원은 “현장의 경험에 문재인정부와의 소통 경험을 더해 나주와 화순의 미래를 책임지고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걱정없이 농사짓는 나라 문재인정부와 함께합니다

쌀 값 보장, 공공비축비 매입가 “역대 최고”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75,140원(40kg, 1등급)

문재인정부 출범 전,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값이 회복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 복구비가 대폭 상향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농정 체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21만 6484원/80kg)에 따라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 당 7만 514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0년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2019년 매입 가격(6만 5750원/40kg)에 비해 14.3% 인상된 것으로 2005년 쌀 공공비축제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기준 4만 4140원에 불과했던 매입가격은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2017년 5만 2570원, 2018년 6만 7050원, 2019년 6만 5750원, 2020년 7만 5140원까지 상승했다.

신정훈 의원은 “식량 주권의 뿌리인 쌀 값이 올라가더라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은 것은 농업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해 기상이변에 따른 쌀 생산량 감소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컸지만, 쌀값 상승으로 농가소득에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지원 복구비 현실화 “역대 최고” 농약대 및 대파대 일반작물 실거래가 100% 적용

태풍 등 농업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도 지난 해부터 인상된 재해복구지원단가가 적용되고 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했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되었다.

최근 5년간 인상항목 수는 2016년 13개 항목에서 2020년에는 123개 항목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은 2016년 실거래가의 60%에서 2020년 83%로 현실화되고 있다.

농작물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에 20년 전 기준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신정훈 의원이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재직 중에 이러한 잘못된 기준을 현실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21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공약을 설계한 책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농어업 비서관의 경험을 살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농정개혁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 경영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의 마련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농업인 소득 증대, 농업경영 안전망 강화를 3대 목표로 ‘안심하고 농사짓는 농업’을 공약한 바 있다.

실천하는 현장의 정치인, 신정훈!

신정훈은 지난 30년 동안 농민, 서민들과 현장에서 부대끼고 그들과 꿈을 나눈 민생정치 전문가이며, 현장의 정치인이다. 신정훈은 생생한 민생정치의 경험으로 국민들께 힘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고 있다.



2020년 8월14일 나주 문평천 제방 복구 현장을 방문한 진영 행안부장관에게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2020년 8월10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당원들과 함께 수해피해가 가장 심했던 나주 다시면 일원 현장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다.



2020년 9월28일 산사태가 발생한 화순군 백야면 원리 피해현장을 찾아 항구적인 복구대책 및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2020년 11월16일 농협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김장나누기 행사에 참여, 겨울철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손길에 힘을 보탤다.



2020년 9월18일 나주지역 농협 조합장들과의 농업정책간담회



2020년 9월25일 나주경찰서직장협의회가 주최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신정훈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2020년 9월25일 화순농협 관내 조합장 초청, 신정훈 국회의원 농정간담회



2020년 8월13일 전남농공단지협의회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위한 특별간담회를 함께했다.



2020년 9월18일 혁신도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새해 포부] 강인규 나주시장

“나주 미래 100년의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안전·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한전공대 정상 개교 적극 지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 실현 박차

“나주 미래 100년의 꿈과 희망이 담긴 사업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미래 선도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나주 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5대 선도정책과제의 본격적인 추진 ▲에너지신산업 중심의 미래형 신산업 육성 ▲함께 정을 나누는 나주공동체 실현 ▲상생 농업 정착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금성산 군부대 등 국방 관련 시설 이전 추진, 광주~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연계한 순환형 광역철도망 구축도 역점 사업이다.

우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철도망 구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LG화학 나주공장 이전 논의, 마한사 복원과 체계화를 위한 영산강권 11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연대 추진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과 이차



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빛가람에너지재단 출범 등 나주를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3월 한전공대 정상 개교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도시기반 시설 구축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국제 안전도시 인증 획득,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소상공·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비

롯해 중고생 신입생 교복 지원과 대학 진학 축하금 지급 등 아동·청소년 교육과 교육 정책도 관심을 두고 추진중에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을 신축해 지역 선순환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산물 제2가공센터 구축과 농어민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월급제 등은 새해 농정의 핵심이다. 열풍 방상판과 미세살수 장치 설치 등 저온피해 경감 시스템 개발로 과수농가의 재해예방과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대 현안인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안 제시와 협의로 해결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강 시장은 “올해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다가올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며 “시민과의 모임 등을 통해 소통강화와 직소민원 책임관 지정 등 자치시대에 맞는 시민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을 선포했다”며 “에너지 신산업 중심의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전남도 일자리 정책 최우수상 수상

영광군과 함께 ‘일자리 창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지난해 7월 개소식을 가진 나주시청년센터

나주시는 2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2020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에서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시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22개 시·군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역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린 고용 우수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일자리와 투자유치 우수 시·군, 유관기관 유공자 등 올해 일자리와 투자유치에 힘쓴 노고를 축하하고 수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나주시는 고용지표, 일자리예산, 청년·신증년 일자리, 일자리 지원 및 시책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하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영광군과 함께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도내 전체 시·군의 고용지표가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나주시는 일

자리 예산 확보 및 집행, 청년 일자리, 일자리 지원, 정성평가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나주시는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민간 및 공기업과 연계한 배전기능인 등 에너지신산업분야 전문가 양성과 취업 알선 및 컨설팅까지 단계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왔던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 취업 시스템인 ‘온라인 채용관’ 홈페이지를 개설해 비대면 1:1 취업컨설팅, 온라인 라이브 취업특강, 화상면접 등을 제공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했다.

강인규 시장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분야 핵심기관·시설의 통합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민의 취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 포부] 구충곤 화순군수

“위기 속 빛나는 명품 화순 실현 ...첨단의료·농업 박차”

첨단 의료 백신사업 확대...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노인·장애인 ‘포용복지’ 구현, 비대면 관광 브랜드 구축



“신축년 새해는 명품화순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코로나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에는 군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마스크 대신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와 침체한 지역경제 등 위기 속에도 더욱 빛

나는 화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명품 화순을 실현할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첨단 스마트 미래농업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부자 농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소득 작목을 개발·보급하고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등 최첨단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까지 화순 고유의 맞춤형 먹거리 전략을 추진하고 내수면 양식 단지, 수산식품 거점 단지와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화순의 특화 산업인 첨단의료·백신 등 사업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유치해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생물약 제2산업단지를 조성해 백신·바이오·생물약 분야 유망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대응체계와 촘촘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감염병의 위협에 대처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시작으로 여성과 고령까지 3대 친화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늘리거나 100원 택시, 1천원 버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까지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또 결혼장려금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이자 지원을 하면서 돌봄센터 등을 확충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관광 산업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관광객 500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 군수는 “새로운 관광 화순 캐릭터를 개발하고 비대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화순만의 색깔 있는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화순 적벽’과 ‘세계 거석 테마파크’ ‘정윤성, 주자묘’ 등을 새롭게 관광 자원화해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화순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총 320억 투자 화순 백신특구에 구축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 화순백신 특구 전경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화순군은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건립 추진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만7000여㎡,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40여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 별도의 공동 연구동과 생산동, 기업 홍보관,

비즈니스 카페, 세미나실, 게스트 룸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생물약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 벤처기업 특화 연구, 생산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한다.

군 관계자는 “화순군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로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바이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화순을 생물약산업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한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축복의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특히 작년 한해동안 코로나-19 여파와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힘드셨을 분들께 올해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시승격 4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한해를 맞아 저를 비롯해 15명의 시의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아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끊임없는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여성과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배려하며, 어느 계층, 어느 시민의 의견일지라도 그 뜻을 헤아리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이 주신 소리와 큰 뜻을 헤아려 의회의 목적과 집행부의 방향이 일치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시와 견제, 선제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집행부의 방향이 정도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관철하기 위해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대응코자 끊임없는 연구와 소통으로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비전 있는 조례와 적극적인 시책을 제시해 건설적인 대안과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21년 신축년은 근면,충직,풍요를 상징하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도 소가 내딛는 우직한 걸음처럼 오로지 시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부지런히 한걸음 나가겠으며, 시민여러분께서 부활시켜주신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 모든 부문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열심히 일을 해 나날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나주시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년사



최기천

화순군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화순군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운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난 한 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새해에는 지난해의 힘겨운 시간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요즈음 우리 당과 문

재인 정부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백신수급의 불안감 등으로 인해 우리당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당원이 서로 뭉치고 합심해 이 난관을 발판으로 더 단단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모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항상 변함없는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당당한 나라! 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끌어 나갑시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국이 불안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힘들겠지만, 당원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이 난관도 극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필수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당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북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7일 “동북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9월 25일 화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북댐 관련 화순군민 권리수호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때 선출된 윤영민 위원장과 류영길 간사를 비롯해 강순팔, 하성동, 정명조, 조세현, 임영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었다.

윤영민 위원장은 “동북댐 피해 실태조사 및 원인 규명을 통해 화순군민의 권리수호 및 증진을 위한 내실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지난 8월 홍수 발생 피해를 계기로 동북댐 홍수조절 기능과 광주시와의 동북댐 관련 소통, 동북댐 구조 전반의 안전 문제 등을 조사하고, 향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덕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코로나 극복,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월18일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2021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93일간의 회기를 소화할 계획이다.

나주시의회 새해 시무식,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4일 김영덕 의장을 비롯한 15명의 시의원, 신정훈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관내 기관·단체장 등과 함께 현충탑과 정렬사를 차례로 방문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김영덕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들은 의회사무실에서 '2021 나주시의회 시무식'을 가졌다.

시의원들은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나주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고 최선을

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덕 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코로나 극복,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월18일 제232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2021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93일간의 회기를 소화할 계획이다.

나주시의회, 연말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



나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의회 청사 앞에서

코로나19로 연말 힘들게 살아가는 나주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생활필수품(쌀, 라면 등)을 후원물품으로 박춘희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전달했다. <사진>

이날 전달된 후원물품은 나주시 20개 읍·면·동에서 각각 1가구씩 추천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20가구에 전달된다.

김영덕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과 가계 경제가 무척 어려운 상황속에 연말이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행사를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의회, 제242회 임시회기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지난 17일, 제242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했다.

먼저, 총무위원회(위원장 조세현)는 ▲어린이 직업체험테마파크와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건립 예정지를 방문했다. 도곡면 천암리에 건립 중인 직업체험테마파크는 지난해 9월에 착공,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69.35%의 공정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추진 중으로 운영법인인 ㈜키즈라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위원들은 이 사업이 지금까지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홍보 및 여론 수렴을 통해 여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 농산물 체험 및 주변의 관광 인프라와 연계 방안, 화순8경 등을 홍보할 수 있는 별도 홍보관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도곡면 천암리 김대중 대통령 기념공간 입구 김대중 대통령 기념비 건립 예정지를 둘러보고 건립 예정지가 관광객의 눈에 쉽게 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장소의 적합성 검토

및 주차장 협소로 인한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영길)는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민원 관련 현장과 ▲사평면 임대정원림~하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현장, ▲화순 목재문화체험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동면 서성리 양계단지 민원 관련 현장에서는 악취 민원 처리 및 방치된 쓰레기 폐기물 처리 상황을 청취한 뒤, 3년 이상 미사육 업체는 행정절차를 거친 후 폐쇄하고, 방치 폐기물은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평면 임대정원림~하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장에서는 각종 도로개설 시설설계비 예산 편성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개설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모후산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집중호우(‘20.7.28~8.11)로 발생한 지붕기와 틈새 긴급복구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장 건축물은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돼 보상이 가능하지만, 복구를 위한 시설설계비가 편성되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지방재정공제회와 복구공사비 지불보증 등의 협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순군의회,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 철회 촉구 성명

화순군의회(의장 최기천)는 지난 11월 19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변경(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제안 설명한 류영길 산업·건설위원장은 “환경부의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은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는 명분으로,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나 주민 의견수렴도 없이 화순군 편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시에는 화순 첨단 의료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구축사업 핵심지역인 동구리, 수만리 등에 대한 국익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산림을 보유한 임업인의 산림복합경영활동이 제약되어 각종 산림사업의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치 세대교체와 지역 당원 역량 강화 사업 '나주정치학교'

나주지역위원회는 정치 세대 교체와 지역 당원 역량 강화를 위해 '나주정치학교'를 열었다.

지방분권 및 시민정치 활성화를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 개선의 당면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 혁신과 시민정치력 강화를 선도할 정치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정치학교'는 총 8강으로 구성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정치, 정당, 예산, 경제, 지방자치, 조례, 교육, 철학 부분의 국내외 전문가들과 석학들을 초빙해 강의가 5강까지 진행되었다.

10일 이뤄진 첫 강은 박상훈(사) 정치발전소 학교장의 '정치인의 소명과 역할'에 대한 강의에서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라는 주제에서는 많은 지역의 정치 지망생들에게 정치인으로 사명과 열정을 심어주는

강의였다.

SNS와 전화접수를 통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총 60여명의 당원들이 수강하며 열띤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다.

수료자에게는 다양한 심화 후속 프로그램 추진과 함께 중앙당에 총16시간의 교육이수 시간이 등록되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포상이 이루어진다. 현재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휴강중이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3월 초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주정치학교 1강



▲이민준 도의원

TV서울 개국 제7주년 기념식 의정대상 수상

이민준 도의원(나주1)은 지난해 말, 코레일유통 사옥 대강당에서 개최된 TV서울 개국 제7주년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지역현안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조례 제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로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도 낮은 자세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봉사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살기 좋은 서울시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고 있는 TV서울은 매년 10월 개최하는 개국 기념식에서 공약 사항 이행과 의정활동 등이 우수한 광역·기초의원들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올바른 국어사용 조례안' 대표발의

이번 조례안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으로 세계적으로 과학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한글이 외래어·줄임말·비속어 등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전직원과 학생의 국어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문서 작성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사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복규 도의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촉구

구복규 도의원(부의장·화순2)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전남도가 작년과 올해 26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지만, 이용률은 17% 정도에 불과해 정부 목표인 40%에 한참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 아동수는 2019년

75,543명으로 전년대비 4,973명이 감소했다"며 "매년 전남에서 평균 4~5천여 명의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 장기임차,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이나 민간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과 시설투자가 필요하다"며,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함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

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화순2)은 15일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

여성당원 독서토론회



▲조영미 여성위원장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2020 여성위원회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성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언택트 비대면 사업으로 1인 크리에이터 교육을 선택하려고 했으나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 확립이 먼저라는 생각과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여성 정치 역량강화를 위한 "더불어 민주주의" 독서토론회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침 중앙당에서 배부된 "더불어 민주주의" 당원 교육교과서가 있어서 금상첨화의 심정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당헌, 당규, 및 민주당의 역사와 참여민주주의의 대해 독서하고 토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처음하는 공모사업이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무국의 적극적 협조로 마무리 하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참여한 여성위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 결과집까지도 내놓을수 있게 되어 뿌듯합니다.

체육위원회 국회 나들이



▲홍영섭 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서울 여행이 2020년의 마지막 여행이었다. 나주지역위원회 소속 체육위원회(최승규 위원장) 임원 10명이 KTX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해 국회로 향했다. 국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시위하는 장면으로 보는 게 다였던 나에게 그곳은 꽤 신비로운 곳이기도 했다.

의원 회관 입구에서 박성태 비서를 만나 신분증을 국회 방문증으로 바꾸고, 검색대를 지나 서야 드디어 신정훈 국회의원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철통 보안인 걸 보니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현장이며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국회구나!'라며 실감했다. 의원 사무실의 분위기는 제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고요 속의 전 쟁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많은 인력과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과 저희들은 민주당원으로 지역 체육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 꽤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당신께서도 잘 가지시 않는 VIP 식당에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국회 뜰을 함께 거닐며 직접 사진도 찍어주시고, 산책 중인 다른 국회의원을 소개해주시며 나주에서 찾아온 청년당원이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직접 가꾸시는 국회 텃밭은 참으로 예술이었다. 달리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갑갑한 도시와 삭막한 국회 내부에 저렇게도 평화롭고 편안한 쉼터 같은 곳이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물개박수를 보내며, 아쉽게도 2020년 마지막 서울 여행을 마쳤다.



▲최명수 도의원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에 대한 지속적 홍보 필요

제348회 제2차 정례회 2020년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심사에서 "전남에서 생산되는 배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최명수 의원은 "전남의 대표 과수인 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며 "각 시·군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주산지인 나주, 영암, 순천, 신안 등 협력체계를 구성해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 등 코로나 예방

에도 효과가 좋은 배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어려운 과수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식품국 김경호 국장은 "전남뿐만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 등의 판매망 확보를 위해 마케팅 예산을 증액하고 남도장터 등을 이용한 온라인 판매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개선

농촌생활문화 향성과 전문 농업인 육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명수 의원(나주2)은 '전남도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농촌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지

도사회, 생활개선회, 4-H회의 체계적인 육성 지도를 위한 역량 강화와 과학영농기술 및 친환경농업을 선도 실천하면서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핵심주체로 지역농업을 이끌어 가고자 운용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위촉하도록 개정했고,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명수 의원은 "학습단체 자율 활동 기반조성 사업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해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인을 육성하는 토대 마련과 농촌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영농정착을 하는 농업인들의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여성농업인의 전문역량 개발 및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행주 도의원

도민 안전공제보험 시행과 홍보강화

문행주 도의원(화순1)은 25일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심사에서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에 12억 3천만 원 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도민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2억 4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재난 대비를 위한 복지인 만큼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정작 주민들은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에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행주 의원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재 청구 시스템의 정비와 꼼꼼한 홍보계획 수립·실행으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재해시스템 개편 절실

문행주 전남도 의원은 지난 11일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간 협력 및 재해시스템 구축과 도와 시·군의 특별사법경찰 업무 재편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문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시 상수원인 동북담 수위 조절 실패로 상하류 지역 침수 피해로 이어진 것을 거론하며 "지난 8월 광주시의 상수원인 화순 동북담의 수위조절 실패로 그 일대가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관리주체인 광주시는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관련 조례의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중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별사법경찰에 관련해 "도 196명, 시·군 50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와 시·군 간 5개의 업무가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단속업무를 협의하고 분담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